

조합장 경영방침

- 더 잘살게 하는 밀양농협
- 더 투명한 밀양농협
- 더 다가가는 밀양농협
- 더 신뢰받는 밀양농협

밀양농협신문

<https://my.nonghyup.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이 성 수 ■ 발행처 밀양농업협동조합 ■ 서기 2026년 9월호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777 전화 355-8500~7(비매품) <1면> 제165호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 개최

제11대 상임이사 선출로 새로운 도약 다짐

지난 8월 3일(월) 오전 11시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전체 구성원 76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의가 개최되어, 우리농협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갈 제11대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로, 높은 참석률 속에서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로 엄숙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이성수 조합장은 “지속되는 폭염과 각종 자연재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영농환경 속에서도 지역농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힘써주시는 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소비 위축, 금융환경 변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우리농협이 종합협적평가 7년 연속 전국 1등급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의원님



과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신뢰받는 농협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상임이사 선출의 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추천된 최윤석 상임이사 후보자는 참석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밀양농협 제11대 상임이사로 선출되었다.

새롭게 선출된 최윤석 상임이사 당선인은 앞으로 조합의 건전한 경영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농업·농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 중심의 경영혁신, 건전한 금융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과 조합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날 기타 토의 시간에는 최근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농업 발전 방향,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었다.

- 경영지원본부

밀양농협 제11대 최윤석 상임이사 취임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의 새로운 동력 창출

지난 8월 3일(월)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최윤석 상임이사의 연임을 확정하고, 9월 1일부터 제11대 상임이사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연임은 오래 현장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밀양농협의 안정적인 경영과 상호금융 발전에 기여해 온 최윤석 상임이사의 역량과 리더십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취임식은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업무와 직원 간 소통에 충실하고 싶다는 최윤석 상임이사의 뜻에 따라 본점 임직원과 간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최윤석 상임이사는 1993년 밀양농협에 입사한 이후 30여 년간 여신과장, 신용사업본부장, 지점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금융과 경영 전반에 폭넓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밀양농협 최초로 상호금융MBA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다. 그리고 새로운 임기를 맞아 “조합원과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밀양농협, 임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밀양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윤석 상임이사는 취임사를 통



해 “연임의 기쁨보다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는 사명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밀양농협 상호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큰 실익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농협 금융의 중요한 책무”라며 “건전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높여 상호금융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조합원에게는 언제든지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최윤석 상임이사의 연임을 축하하며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상호금융의 건전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는 밀양농협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갖춘 최윤석 상임이사가 임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밀양농협 상호금융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의 성장은 단순히 금융사업의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을 비롯한 농협의 다양한 사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조합원의 실익 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을 이어져야 한다”며 “조합원과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건전경영과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밀양농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영지원본부

2026년 NH농협손해보험 「경남 Top-Class 사무소」 수상 쾌거

보험 추진 우수성과 인정.... “농심” 그룹 1위!

우리농협은 지난 8월 19일(수) NH농협손해보험이 실시한 2026 「경남 Top-Class 사무소」 프로모션에서 농심 그룹 1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NH농협손해보험의 「경남 Top-Class 사무소」는 사무소의 보험 추진 성과를 높이고 전 직원이 동심협력(同心協力)하는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다. 특히 손해보험 고유상품 추진을 통해 조합원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비이차이익 확대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무소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농협은 “농심(農心)”그룹 1위를 차지하며 경남 Top-Class 사무소로 선정됐다. 이는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보험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객과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을 적극적



으로 안내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이번 「경남 Top-Class 사무소」 선정은 조합원과 고객께서 보내주시신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의 실익을 높이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비이차이익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조합원과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확대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해 조합원 실익 증진과 농협의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 신용사업본부

제2회 밀양농협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우리농협은 지난 5월 11일(월) 삼문동 둔치 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밀양농협조합장배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농업인 조합원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조합원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될과 동시에 지역농업과 농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는 밀양농협 조합원 17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밀양시 파크골프협회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협조 속에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대회는 36홀 스트로크 방식(샷건 방식)으로 치러졌고, 수상자들에게는 농산물 상품권이 전달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도 기념품 제공과 다양한 경품 추첨으로 즐거움이 더해졌



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축사를 통해 “농협은 단순히 금융기관을 넘어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조합원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한 조합원은 “이런 대회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건강도 챙

길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밀양농협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채로운 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경제사업본부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 종합경영평가 7년 연속 1등급 달성

※ 상호금융자산 1조 8천억원 달성

※ 상호금융대상 전국 최우수상 수상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밀양농협 조합장 이성수 외 임직원 일동

안전여름나기 사랑의 물품 지원

폭염·가뭄 속 조합원 곁을 지키는 밀양농협

지난 7월 30일(목)부터 31일(금)까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내 70곳 조합원 쉼터(경로당)를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쉼터 안전여름나기 사랑의 물품 지원」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으로 농작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 부진과 영농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농협은 각 경로당에 과일(수박), 라면,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생필품, 휴지 등 여름철 필수물품을 전달했으며,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활 불편 사항과 영농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응 행동 요령과 건강관리 수칙도 함께 안내하는 현장 중심의 생생활동을 펼쳤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심한 가뭄으로 논과 밭의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되고 과수와 밭작물의 생육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



업인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농협은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올해는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농협은 조합원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로서, 조합원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은 무더위를 피하고 이웃

과 정을 나누는 소중한 쉼터인 만큼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올해는 폭염도 심하고 가뭄까지 겹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밀양농협에서 직접 찾아와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물품까지 전달해 주니 힘이 된다”며 “항상 조합원을 먼저 생각하는 밀양농협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사업본부

풍년농사기원 농촌일손돕기 실시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다

우리농협은 지난 5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산내면 얼음골사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풍년농사기원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하며 농촌 현장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번 일손돕기는 밀양농협 임직원과 주부대학 동창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사과 적과 작업과 농자재 정리 등 다양한 영농작업을 지원하며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을 보탤다.

특히 사과 적과 작업은 짧은 기간 내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작업인 만큼, 밀양농협은 고령농가와 상해·질병 등으로 작업 수행이 어려운 취약농가를 우선 선정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일손돕기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농촌일손돕기에 함께한 임직원 및 주부대학동창회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조합원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아니라 점심식사는 인근 식당



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은 세심한 배려도 함께 실천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한 조합원은 “농번기철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밀양농협에서 직접 찾아와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많은 인력이 함께 작업해주어 적과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주는 곳이 바로 밀양농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농업의 근간인 농촌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

께 땀 흘리며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환경 개선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밀양농협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농촌지원사업과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지역대표농협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사업본부

조합원 무료건강검진 사후관리 설명회 실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으로 조합원 삶의 질 향상 앞장

우리농협은 지난 5월 27일(수)부터 5월 29일(금)까지 총 3일 동안 2026년 조합원 무료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무료건강검진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하며 조합원 건강복지 증진에 적극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검진 이후 조합원들이 결과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삼성창원병원 전문 간호사들이 분지점을 직접 방문해 1대1 맞춤형 상담과 건강관리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 중심의 검진 결과를 조합원 눈높이에 맞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 큰 호응을 얻었다.

상담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혈압·혈당·간기능·심혈관질환 등 주요 건강지표에 대한 설명은 물론 생활습관 개선과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까지 안내받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조합원이 건강해야 농촌이 건강해지고 농협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지역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건강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조합원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복지이자 행복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밀양농협은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는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농협은 이성수 조합장 취임 이후 지난 8년간 매년 연장자순으로 약 500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000여 명의 조합원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단순 건강검진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설명회와 건강상담까지 연계 운운함으로써 조합원 중심의 실질적인 복지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조합원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사업본부

신규 조합원과 상생의 첫걸음, 농협이념 교육 및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소통과 실질 교육으로 신규 조합원 공감 이끌어

지난 4월 30일(목) 오전 10시 우리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신규 가입 조합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신규 조합원 농협이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가치 확산과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신규 조합원들이 농협의 이념과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우리농협의 주요 사업과 복지지원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행사 첫 순서에서는 임원 심한 간부직원 소개를 비롯해 밀양농협 주요현황 및 사업소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다양한 혜택과 참여방안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순서로 ‘농협 조합원 법률 상식’을 주제로 前농협대학교 김상배 교수가 강연에 나서 실제 사례 중심의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참여 조합원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조합장과 간담회 시간에는 신규 조합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조합 운영과 사업 참여, 이용 혜택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조합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상세하고 진솔한 답변이 이어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신규 조합원 김○○은 “밀양농협의 다양한 복지혜택과 사업 규모

에 큰 신뢰를 느꼈다”며 “앞으로 금융 거래와 농자재 이용 등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농협 발전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새롭게 밀양농협 가족이 되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농협의 모든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사업본부

2026년 시설원예작목반 임원회의 개최

지난 5월 14일(목) 11시 우리농협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친환경자재 지원 품목 선정」을 주제로 시설원예작목반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개장한 공판장지점 영농자재센터와 연계하여 조합원 및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한 친환경자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원예작목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농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은 친환경자재 12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영농자재센터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및 영농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갯잎 재배 모 작목반장은 “지금까지 공급한 친환경자재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고, 영농자재센터 개장이후 필요한 자재를 보다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우리농협이 기후변화에 발맞춰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밀양농협 시설원예작목반의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작목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목반장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우리농협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사업본부

제27기 장수대학 명랑 운동회 성황리 개최

건강과 화합, 행복이 어우러진 특별한 하루

지난 6월 9일(화) 밀양문화체육관에서 장수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기 장수대학 명랑 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대학 교육과정을 일환으로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학창시절 운동회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며 교육생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이날 운동회는 흥겨운 음악과 함께한 댄스 대결을 시작으로 공 던지기, 럭비공 굴리기, 종이컵 쌓기, 고리(링) 던지기, 신발 던지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기로 꾸며졌다. 경기마다 장수대학생들은 열띤 응원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운동장 가득 웃음과 함성을 채웠고, 참가자들은 짧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과 활력을 보여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특히 경기 결과를 떠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 속에서 장수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



역 어르신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뛰다니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며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오늘 명랑운동회가 어르신들께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함께 웃고 즐기며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농협은 지역 어르신들

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수대학이 지역사회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7기 장수대학은 지난 4월 개강해 9월까지 운영되며, 격주 화요일마다 문화답방, 건강관리, 웃음치료, 생활법률, 우리가락, 노후설계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경제사업본부

제주 표선농협 김용우 조합장과 공선회 임원진, 밀양농협 스마트 APC 방문 농협 간 상생협력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 모색

지난 6월 10일(수) 제주 표선농협 김용우 조합장과 공선회 임원진 등 11명이 우리농협을 방문해 거점 스마트APC와 영농자재센터를 둘러보고 농산물 유통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농협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방문단은 우리농협 거점 스마트APC를 둘러보며 농산물의 선별부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는 스마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영농자재센터를 방문해 농업인 지원 체계와 경제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밀양농협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경제사업 성



과, 농산물 판매 전략, 조합원 지원사업 등을 공유하며 양 농협 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생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밀양농협 거점 스마트 APC는 체계적인 선별시스템과 효율적인 물류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품질 균일화와 유통 효율성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방문단의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표선농협 김용우 조합장은 “밀양농협의 선진화된 산지유통시설과 체계적인 경제사업 운영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견학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를 표선농협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농업인 실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성수 조합장은 “지역과 품목은 서로 다르지만 농업과 농업인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협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지원본부

충남 순성농협 임원진 초청, 선진 농협경영 노하우 공유와 상생협력 강화

지난 7월 24일(금)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순성농협 강도순 조합장과 임원진 11명이 방문하여 농협 간 우수 경영사례를 공유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농협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영역량을 높이고, 지역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조합원 실익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순성농협 방문단은 밀양농협 본점을 찾아 환영 행사에 이어 조합장 차담회를 갖고 양 농협의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점 3층 회의실에서는 밀양농협의 주요 경제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판매사업 확대, 경제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특히 밀양농협은 지역 대표 농산물인 고추, 갯잎, 딸기, 사과 등 주요 품목의 생산·유통체계와 판매 전략, 경제사업 운영 노하우,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참석한 순성농협 임원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양 농협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농촌의 인구감소, 이상기후 등 다양한 농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역농협 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행사에 참석한 순성농협 임원들은 “밀양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사업과 조합원 중심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우수 사례를 우리농협 경영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관 견학을 넘어 지역농협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농업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국 농협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우수 경영사례를 공유하고, 조합원에게 더욱 큰 실익을 제공하는 선도 농협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영지원본부

농협손해보험 송춘수 대표이사, 밀양 냉해 피해 과수농가 현장 방문 이성수 조합장 안내로 산내면 사과농가 피해상황 점검 및 농가 애로사항 청취

지난 7월 10일(금) 농협손해보험 송춘수 대표이사가 밀양지역 냉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농작물재해보험 조사 진행 상황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성수 조합장의 안내로 진행됐으며, 송춘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농협손해보험 관계자, 농협손해 경남총국장, 농업보험부장, 관내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냉해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살폈다.

방문단은 산내면 임고리 소재 사과 재배 농가 2곳을 차례로 찾아온 피해로 인한 작과 불량, 생육 부진, 수확량 감소 우려 등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조사 과정과 향후 보상 절차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올해 이상저온 현상으로 산내면을 비롯한 밀양지역 과수농가가 걱정과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피해 농가의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협손해보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춘수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농업인의 소중한 의견을 보험 제도 개선과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용사업본부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 선도, 현장 중심 스마트농업으로 미래농업 앞장

우리농협은 경남농협 본부장과 경제지원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급형 스마트팜 현장 경영을 개최하고, 스마트농업 확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농업인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경영은 농협중앙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농협 본점에서 차담회를 가지고 스마트팜 지원 농가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을 활용하는 농업인들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지원 확대와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밀양농협은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경남농협은 물론 전국에서도 최대 규모의 추진 실적을 기록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정착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경남농협 관계자들은 밀양농협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높은 평가를 보내며, 스마트농업 확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합원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의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돈 버는 농업, 희망찬 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농협은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비롯해 디지털 영농 기술 지원, 농업인 교육, 영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선도하는 지역대표 농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제사업본부

2026년 밀양농협 본지점 업무보고 및 운영공개회



본점 7월 15일(수)



예림지점 7월 16일(목)



공판장지점 7월 21일(화)



가곡지점 7월 22일(수)



내일지점 7월 23일(목)



내이·신촌지점 7월 28일(화)



교동지점 7월 29일(수)



산내지점 7월 30일(목)



남명지점 7월 31일(금)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주산지 현장 영농기술 교육 실시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밀양 딸기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

지난 7월 7일(화) 공공장지점 농업인 교육장에서 관내 딸기 재배 조합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주산지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딸기 재배 농가의 전문 재배기술 향상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재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농협안성교육원이 추천한 전문 강사인 전하준 교수(대구대)가 초청되어 토양 재배 기술 개선, 삽목·육묘 관리, 화아 분화, 정식기 관리 기술 교육 등 실제 영농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핵심 재배기술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와 재배환경 변화로 딸기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참석한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급변하



는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과 새로운 기술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과 현장 중심 영농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밀양 딸기는 우수한 재배기술과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농협은 농

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전문교육, 현장 컨설팅, 생산지도 등 다양한 영농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농협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 농업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인이 행복한 농협, 지역농업과 함께 성장하는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사업본부

원로 조합원과 함께하는 밀양농협 친선 게이트볼 대회 ‘성황’

건강한 노후와 화합의 장 마련... 조합원 복지증진과 소통 강화 앞장

지난 7월 8일(수) 산내면 남명 일음골게이트볼장에서 조합원과 준 조합원 50여 명(8팀)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농협 친선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농촌지역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오랜 세월 지역 농업과 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조합원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과 조합원 간 화합 및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과 소통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밀양농협은 참가자 전원에 게 기념품(농산물 꾸러미 세트)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 원로 조합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대회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농촌문화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오늘날 우리농협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농업·농촌을 지켜오신 원로 조합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복지사업과 문화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트볼은 세대를 넘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서 건강 증진은 물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우리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웃고 성장하는 따뜻한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밀양농협은 장수대학 운영, 조합원 복지지원사업, 영농지원사업 등 다양한 환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합원과 함께하는 든든한 100년 농협’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경제사업본부

웃음과 화합으로 하나된 장수대학 총동창회 정기총회 ‘성황’

회원 간 화합과 친목 다지며 지역사회 소통·유대 강화의 장 마련

지난 4월 28일(화) 10시 삼문동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된 장수대학 총동창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대학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대학 총동창회 원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는 행사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뜻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총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보고와 감사보고, 예산 결산보고를 비롯한 신임 기수(26기)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회원 간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우정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참석한 어르신들의 웃음과 박수가 끊이지 않은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밀양농협이 준비한 값싸고 맛있는 기념품은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장수대학은 농협과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과 배움의 공간”이라며, “오늘 정기총회가 회원 간 우정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밀양농협은 지역사회와 함

께 성장하는 농협으로서 어르신 복지증진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밀양농협은 장수대학 운영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꾸준히 힘써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문화사업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사업본부

‘명품 맥문동’ 생산기반 다진다

‘생산성 향상·고품질·농가소득 증대’ 세 마리 토끼 잡는다

지난 8월 31일(월) 산내지점 2층 회의실에서 맥문동 재배 조합원 1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맥문동 재배농가 고품질 생산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적인 맥문동 주산지인 밀양의 생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재배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영농기술을 농가에 전파함으로써 고품질 맥문동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병해충과 생리장해 등 재배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재배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농가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경북대학교 이인중 농학박사가 강사로 나서 맥문동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영농기술을 전달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고품질 맥문동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잡초방제 및 연작피해 예방기



술 ▲생리장해 발생 원인과 관리 대책 ▲비료·퇴비·관수 관리요령 ▲주요 병해충 예방 및 방제기술 등으로 구성돼 재배농가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순한 이론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 질의응답과 영농 애로사항 상담을 함께 진행해 조합원들이 실제 재배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전문가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우리농협은 고품질 생산 기술의 지속적인 보급과 재배기술 표준화를 통해 밀양 맥문동의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으로서 ‘밀

양 맥문동’의 브랜드 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기후변화와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영농기술의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맥문동 재배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사업본부

ISO 37001 도입 본격화, 청렴·윤리경영 새 기준 세운다

우리농협은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과 조합원과 고객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본점 2층 대회 의실에서 본부장, 지점장, APC센터장, 장제사업소장, 본점 팀장 등을 대상으로 「범농협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도입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합원과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협은 금융·경제·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조합원과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투명한 업무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농협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경영체계를 구축해 부패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고 이를 예방·통제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부패가 발생한 이후 책임



을 묻는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고, 관련 업무절차와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며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ISO 37001의 기본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비롯해 ▲부패방지 관련 국제표준의 이해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부패방지 방침과 업무 프로세스 수립 ▲내부통제 및 내부심사 ▲인증심사 준비 등 실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단순히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업무 전반을 점검해 부패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사전 예방에서 발생 시 대응,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업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관리자급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업무별 부패 위험 요인을 면밀하

게 분석하고, 조직 실정에 적합한 부패방지 방침과 업무 프로세스 및 대응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ISO 37001 인증 취득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을 단순한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현장에서 임직원 모두가 청렴과 윤리경영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조직문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이나 잠재적인 부패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협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경영지원본부

제20회 갯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 ‘명품 밀양 갯잎’ 전국에 알리다!

우리농협은 밀양 갯잎의 경쟁력 강화와 재배 농업인의 화합을 위해 개최된 「제20회 갯잎가족 한마음체육대회」에 함께하며, 밀양 갯잎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밀양시 갯잎연합회가 주관하여 갯잎 재배 농업인과 가족, 관계기관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경기, 화합 한마당, 경품 추첨,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농업인

모두가 함께 웃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밀양농협은 행사에 적극 참여해 갯잎 재배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밀양 갯잎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보탰다.

밀양은 전국 최고의 시설원에 재배기술과 깨끗한 자연환경, 풍부한 일조량과 우수한 재배기반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갯잎이 향이 진하고 식감이 뛰어나며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는 고품질 농산물로 전국 소비자

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와 안전한 생산체계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는 명품 농산물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갯잎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밀양 갯잎은 전국 최고의 품질과 경쟁력을 자랑하는 밀양의 대표 특산물이다. 앞으로도 밀양농협은 갯잎 재배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생산기반 확대와 유통 활성화, 판로 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사업본부

이성수 조합장, 장수대학생을 위한 강의

배움에는 끝이 없다...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통의 시간 마련

지난 5월 12일(화)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제27기 장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수 조합장의 강의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강의는 장수대학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장수대학생들에게 우리농협의 주요 현황과 조합원 복지사업, 교육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성수 조합장은 강의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은 조합원과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수대학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전하며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밀양농협이 추진 중인 조합원 실익지원사업과 지역사회 상생활동, 농업인 복지 확대 노력 등이 상세히 소개



개되어 장수대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장수대학생들은 강의 내내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경청하며, 우리농협의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양농협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밀양농협 장수대학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다양한 교양강좌와 건강교육, 문화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 기수마다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제사업본부

밀양농협 퇴직 임직원 초청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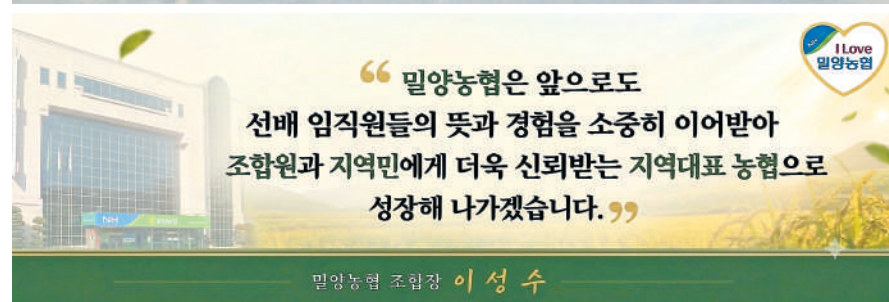
함께 이룬 밀양농협의 성장,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금) 공판장지점 농업인 교육장 2층 회의실에서 퇴직 임직원 2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랜 시간 우리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퇴직 임직원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밀양농협의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준 퇴직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밀양농협의 주요 현황과 사업성과, 조합원 실익지원사업,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다양한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우리농협의 변화와 발전상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이성수 조합장과 간담회에서는 밀양농협의 미래 발전 방향과 조합원 중심 경영,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진솔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통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퇴직 임직원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전하며 우리농협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오늘의 밀양농협은 오랜 세월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선배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퇴직 이후에도 우리농협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밀양농협은 앞으로도 선배 임직원들의 뜻과 경험을 소중히 이어받아 조합원과 지역민에게 더

욱 신뢰받는 지역대표 농협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밀양농협은 조합원 실익증대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퇴직 임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세대 간 유대와 협동조합 정신 계승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

- 경영지원본부

밀양농협 부녀회장단, 선진지 견학 통해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농협사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의지 다져

우리농협은 2026년 부녀회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3일(목) 부녀회장단을 모시고 경북 울진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농촌 여성지도자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부녀회장들의 폭넓은 견문을 함양하고, 농협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녀회장단 60여 명이 참석하여 오전 7시 30분 삼문동 오리배선착장에서 출발해 울진 해양과학관과 천연기념물인 성류굴을 차례로 견학했다.

참가자들은 울진 해양과학관에서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배우며 미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국내를 대표하는 석회암 동굴인 성류굴에서는 자연이 오랜 세월 빚어낸 신비로운 경관을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 보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견학 일정 전반에 걸쳐 부녀회장들은 지역별 활동사례와 농협사



업 참여 경험을 공유하며 조직 운영의 우수사례를 나누는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상호 신뢰와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의 부녀회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농촌 여성조직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한층 높이고, 부녀회가 지역사회와 농협사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조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참석자들 역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봉사활동과 농협사업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부녀회는

농협과 지역사회를 잇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농촌 공동체 발전을 이끄는 핵심 조직”이라며,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활기찬 부녀회 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부녀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촌 여성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제사업본부

고주모 임원회의 및 장화아트 체험활동 실시

지역사회 나눔실천 위한 봉사활동...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 앞장

지난 5월 20일(수)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이하 고주모) 임원진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 및 장화아트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주부대학동창회 및 고주모 임원진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봉사활동에 활용할 장비 제작을 위한 장화아트 체험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직접 장화를 꾸미고 제작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농촌 현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실질적인 나눔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성수 조합장은 “평소 우리농협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고주모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고주모 모임이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더욱 활



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농협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성모임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교육과 체험,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농협 고주모 회원들은

매년 풍년농사기원 일손돕기를 비롯한 사랑의 감장감치나눔행사, 떡국떡 판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대표 여성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제사업본부

2026년 밀양농협 본지점 내부조직장 선진지 견학



우수부녀회장 탐방

양림간 영농회의 영원한 흥부자 박현숙 부녀회장 이야기

마을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엔 박현숙 부녀회장이 있다. 밝고 털털한 성격에 재치있는 입담, 여기에 노래와 춤 실력까지 겸비한 그녀는 양림간 마을의 명물이자 독보적인 흥부자다. 늘 땀 흘리며 농사 짓는 박현숙 회장의 활기찬 일상을 만나보았다.

13년째 양림간 부녀회를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 마을 관습상 60세가 되면 부녀회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통상적이었지만, 박 회장은 올해 13년째 양림간 부녀회를 이끌고 있다. 고령화되는 농촌 현실 속에 젊은 부녀회원의 유입이 줄어들자, 16명 회원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봉사해 온 것.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터득한 그녀만의 노하우와 밝은 에너지 덕분에 양림간 부녀회는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딸기 2,300평을 가꾸는 부지런한 일꾼. 가족과 함께해서 든든하다는 박현숙 회장은 남편과 함께 하우스 10동 규모의 딸기 농사를 성실히 경작하고 있는 베테랑 농업인이다. 슬하의 두 아들 부부 역시 3,000평 규모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 온 가족이 밀양 딸기의 명성을 이어가는 든든한 농군 가족



이다. 친정이 양림간이고 시댁이 삼문동인 박현숙 회장은 남편 자랑에도 거침이 없다.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꼼꼼한데다 가정적이라 큰 힘이 된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농사일이 고되고 피곤할 때도 많지만 박 회장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의외로 소박하고 건강하다. 양림간 쪽방길을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쐬고 지인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나누다 보면 하루의 피로가 씻은 듯 달아난다고 한다.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건강함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그녀의 가장 큰 보약이다. 박현숙 회장이 말하는 행복 역

시 거창하지 않다. 밀양농협 조합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며, 특별한 취미보다는 부부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계모임, 해외여행 등을 즐긴다. 또한 밀양농협의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 관광버스 여행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어울리는 시간이야말로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큰 즐거움이라는 박현숙 회장은. 그녀는 밀양농협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다른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밀양농협 조합원이라는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조합장님을 비롯해 공판장지점 직원분들이 늘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박현숙 회장은 양림간 운정미 이장에 대한 칭찬과 감사도 잊지 않았다.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동네 일에 늘 솔선수범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배울 점이 많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주변까지 환하게 만드는 박현숙 부녀회장. 긍정의 힘으로 농사도, 부녀회 일도 척척 해내는 그녀가 있기에 양림간 마을과 밀양농협의 내일은 한층 더 따뜻하고 활기차다.

- 공판장지점 석한준

세심한 관심으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 지켜

6,500만원 고액 현금 인출 막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통지점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6,500만원에 달하는 고액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지켜내며 고객 자산 보호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최근 80대 고객 최 씨는 정기예금 6,500만원을 중도해지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교통지점을 방문했다. 고객은 “농협에 돈을 맡겨 두는 것보다 직접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다”며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담당직원은 고령의 고객이 거액의 정기예금을 갑작스럽게 중도해지해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금의 사용목적과 인출 사유를 세심하게 확인했다. 고객은 처음에는 “외국인 방값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직원이 구체적인 경우를 재차 확인하자 앞선 설명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또한 휴대전화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설명했음에도 관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가족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권유하자 “아이들이 모르는 돈이니 자녀들에게 알리지 말라.”며 연락을 만류해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높였다.



이에 교통지점 직원은 고객의 재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인출 절차를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에 나서는 한편, 인근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관의 현장 방문과 협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도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와 범죄 수법을 설명하여 고객에게 현금 인출을 신중히 재검토하도록 안내했다. 농협 직원과 경찰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고객은 고액 현금 인출을 중단했다. 결과적으로 6,500만원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번 사례는 금융창구 직원의 작은 관심과 세심한 관찰, 적극적인 대응이 고객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 특히 고객의 요청

을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소와 다른 금융거래와 행동을 면밀히 살핀 것이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통지점 박은미 직원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금융기관 직원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 한 번 더 확인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작은 관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밀양농협은 앞으로도 고객 현금 인출 등 금융사기 의심 거래에 대한 확인 절차를 철저히 하고, 최신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교통지점 박은미

올해도 활짝 열린 ‘무더위 쉼터’! 밀양농협이 함께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잠시 밖에서 있는 것조차 힘들 만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사일과 생업에 종사하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농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농업인들에게 여름철 폭염은 단순히 불편한 날씨를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재해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쉴 곳을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에게도 무더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밀양농협은 지역주민과 조합원 여러분이 무더위를 피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올해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방문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무더위에 지친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시원한 실내 공간과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공간, 잠시 몸을 기댈 수 있는 의자,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잔, 어찌면 아주 작은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 흘리고 돌아온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힘이 하루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농협에 불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을 지나시다 너무 더우시면 잠시 들어오십시오.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힘이 드시면 쉬었다 가십시오. 잠깐의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실 때도 언제든지 농협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밀양농협은 금융업무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든든한 이웃이 되고자 합니다.

봄에는 풍년을 기원하고, 여름에는 땀 흘리는 농업인의 건강을 걱정

하며, 가을에는 풍성한 결실을 함께 기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 지역과 함께 살아온 농협이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농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때일수록 서로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피고, 특히 어르신과 농업인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합니다.

밀양농협 역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지역주민 여러분이 잠시나마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모두 막아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쉬어갈 시원한 그늘 하나는 피어드리겠습니다.

더우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농협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조합원 여러분 모두가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밀양농협이 늘 가까이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농업인과 함께, 언제나 여러분 곁에는 밀양농협이 있습니다.

- 산내지점 민태홍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산내지점 영농자재백화점·하나로마트 냉방시설 개선

더운 여름, 장을 보거나 영농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농협을 찾아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영농자재백화점과 하나로마트 냉방시설 개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잠시 머무는 시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밀양농협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영농자재를 구입하고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장만하시는 동안 더위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냉방환경을 한층 개선했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들르셔도 좋고, 무더운 날 장을 보러 오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시고 잠시 더위를 식히며 편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의 시설 하나를 바꾸는 일도 결국은 조합원 여러분의 작은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



됩니다. 밀양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 시원하게, 더 편안하게, 더 가까이. 새롭게 개선된 산내지점 영농자

재백화점과 하나로마트,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편안해야 농협도 행복합니다.

언제나 조합원 곁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는 밀양농협이 되겠습니다.

- 산내지점 오사랑

NH NongHyup

밀양농협 산내지점

관수자재 입하 판매중

여과기 · 밸브 · 소켓 · 새들 · 호스자재 · 과수받침대 · 기타 관수시설 등



자주 사용하는 품목 상시 보유



대량 또는 특수자재는 주문 후 신속히 공급



농협 조합원 이용고배당 혜택



문의 055-352-8861

경남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산내지점)

NH

농협



농협 조합원 이용고배당 혜택을 누리세요!

신규직원 입사포부

밀양농협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4일부로 밀양농협 장제사업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신규직원 김준우입니다.

먼저 뜻깊은 인연으로 밀양농협의 가족이 되어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기대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조직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장제사업소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으로 배웅하는 매우 뜻깊고 엄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작은 행동 하나와 말 한마디에도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편안함을 드리고, 고인께는 끝까지 예를 다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또한 장례지도사로서의 전문성과 품위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신뢰받는 직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지만, 선배님들의 경험과 가르침을 소중히 새기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 빠르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고객과 조합원,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밀양농협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겸손한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으로 조직에 보탬이 되는 직원, 따뜻한 배려와 성실함으로 기억되는 직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발전한 내일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밀양농협의 품격과 신뢰를 높이는 데 작은 힘이 나마 보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제사업소 김준우

금융의 문턱 낮춘 ‘포용금융 동행창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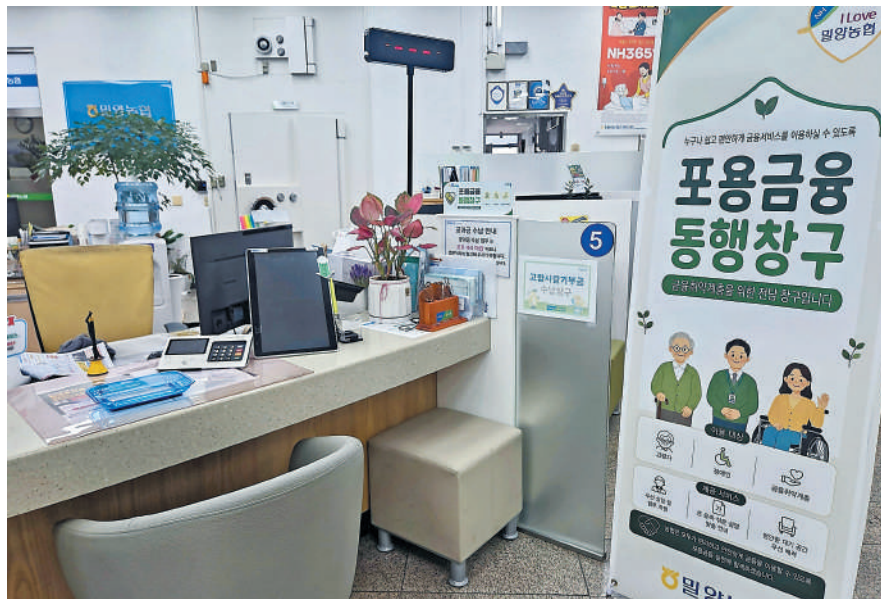
어르신·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가곡지점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포용금융 동행창구’를 운영하며, 금융취약계층의 편의 증진과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서비스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포용금융 동행창구’는 신체적·정신적 특성이나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고객 배려 전용 창구다.

우리농협은 동행창구 운영과 함께 영업점 내 경사로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돋보기안경 비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조성, 어르신 대상 디지털 금융 안내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모바일뱅킹이나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금융업무 처리에 그치지 않고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소의를 최소화하고,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밀양농협의 노력은 금융취약계층

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배려와 상생의 금융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고객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먼저 다가가는 밀양농협의 포용금융 실천은 ‘고객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가곡지점 이윤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소중한 농업을 지킵세요!

예고없는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지켜드립니다.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일정

2월	적과전동합 II (사과, 배, 단감, 딸은감) 전국 원예시설 전국 ※ 단, 시설재배는 경남(양양, 경북(영산), 충남(공산·논산, 시립감자는 전북(김제·부안)에 한함 버섯(표고버섯, 노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전국	8월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브로콜리 전국 월동양배추, 월동배추, 가을감자 전국 매밀 전년, 제주 월동무 제주(제주·서귀포) 쪽파(살파)[1월] 경북(예천), 충남(아산, 천안(무안·강릉·보성), 제주(제주) 쪽파(살파)[2월] 충남(아산)
3월	봄감자, 단호박 전국 봄무(산귀) 강원(평강), 전북(고창)	9월	차 전년, 농작물 시급지 전국
4월	봄감자, 밭, 대추, 호두, 고구마, 옥수수 전국 벼, 갈대, 대파 전국 고추 전국(강원 제외) 수박 경북(안동·영주·예천·봉화), 전북(고창·진안)	10월	마늘 전국 ※ 조기매출예정 특목배추 단지(전남·남도·충청·가평·가평)
5월	인삼 전국 고령지배추, 고령지무 강원, 전북, 경북 고령지감자 강원, 경북 고추, 고령지감근 강원 참깨 경북(문경·예천)	11월	밀, 보리, 메밀, 삼귀, 자두, 사과 전국 복숭아, 오미자 전국 귀리 전년(강진·해남) 오디 전년, 전년, 경북(상주·영동), 경남(진주·밀양) 두릅 전년(순창), 전년(관양·순창), 전년(하동) 유자 경남(거제·남해·통영), 전년(고흥·완도·진도) 무화과 전년(양양·신안·목포·무안·해남) 복분자 전북(고창·정읍·순창·무주·진안), 전년(원주·담양·장성) 블루베리 경기(평택), 경북(상주·의성), 전남(담양), 전북(순창), 충북(영동)

1 원예시설내 시설작물 1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마나리, 복숭아, 감자, 컷알 (24종)

자연재해 + 가격하락도 보장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 판매

3월	봄무 강원(평강), 전북(고창)	6월	콩 전국
4월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가을감자 전국 감귤(한양유) 전국 배 충남(진안), 충북(영동), 전남(영광), 경북(상주)	8월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가을감자 전국 월동양배추 전국 월동무 제주(제주, 서귀포)
5월	고령지배추, 고령지무 강원(강릉, 태백, 정선) 고령지감자 강원, 경북	10월	마늘, 양파 전국
		11월	보리, 보드, 복숭아 전국

밀양농협은 조합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이

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시기와 판매지역이 서로 다르며, 기상 상황 등에 따라 판매 기간이 변경되거나 일시 중지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상기 판매일정표를 참고하시어 재배 품목의 가입시기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양농협은 조합원 여러분께서 보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27년에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사는 한 해의 땅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결실입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에 대비하는 준비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겠지”보다는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가입조건과 보장내용은 밀양농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소중한 농업과 한 해의 결실을 지켜 주세요.

밀양농협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든든한 농가경영을 위해 한발 앞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늘 함께하겠습니다.

- 산내지점 김영룡

내이지점 하나로마트 맞춤형 꾸러미, 절찬 판매 중!



나들이와 여행에 필요한 먹거리를 한번에 준비할 수 있는 꾸러미 사업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하게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버스 여행이나 소규모 나들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관광 꾸러미를 중심으로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체육대회, 주민 행사, 워크숍 등 각종 기념 행사에도 맞춘 꾸러미 준비도 가능합니다. 행사 인원과 목적, 예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품목을 상담을 통해 구성할 수 있어 행사 준비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도 제철 과일을 위주로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과일 형태로 제공해 이동 중이나 행사장에서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선하게 즐길 수 있어 여행이나 행사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여행 일정과 예산, 인원수에 맞춰 필요한 수량을 준비해 드리기 때문에 단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밀양농협 내이지점 하나로마트

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 드리고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이나 단체행사,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편리하게 상담해 주세요. 원하는 구성과 수량, 예산에 맞춰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는 055) 355-8515입니다.

- 내이지점 하나로마트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감사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본 점

내이지점

가곡지점

산내지점

예림지점

내이지점

교동지점

공관장지점

남명지점

신촌지점

안 본 점 : 355-8500~7
NH웨딩컨벤션 : 355-8505
내 일 지 점 : 355-8509~11
내 이 지 점 : 355-8513~4

내이하나로마트 : 355-8515
예림지점 : 355-8526~7
농협주유소 : 355-7777
공관장자재판매장 : 355-8519

가곡지점 : 355-8521~3
교동지점 : 355-8520
공관장지점 : 355-8517
산내지점 : 352-6042~4

산내자재백화점 : 352-8861
산내하나로마트 : 350-6809
농협장례식장 : 355-8525
남명지점 : 356-1991

남명자재백화점 : 356-8502
신촌지점 : 355-8535
스마트원에APC : 355-8553
얼음골사과APC : 353-8553